

다. 산학연 협력 사업의 추진현황¹⁾

신기술창업지원단은 벤처창업가들을 지원하여 대전지역의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1994년에 설립된 첨단기술 창업보육센터(TBI: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s)와 기술혁신센터(TIC: Technology Innovation Center)를 모체로 하고 있다. TIC는 KAIST 및 인접한 대덕 연구단지의 연구소들이 보유하는 첨단기술을 입주기업에게 확산하고 연구결과의 기업화를 촉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었고, TBI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캠퍼스 내에 입주시켜 KAIST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시설, 경영지식, 사업정보 등 의 지원을 통하여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설립의 목적이었다.²⁾

이들 두 센터는 1997년 4월 통합된 후 창업지원센터로 확대·개편되었으나 같은 해 7월에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개발상담센터를 흡수하고 신기술창업지원단(High-Tech Venture Center: 이하 창업지원단으로 약칭)으로 다시 한번 더 확대·개편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TIC 및 TBI 사업뿐만 아니라 신기술에 대한 수탁연구, 무상양허, 기술자문 등 신기술개발 지원사업과 신기술 창업자에게 필요한 연구개발 정보, 시장정보, 특허정보 등을 제공하는 신기술 종합정보 제공사업, 예비 창업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신기술 창업지원사업, 연구단지에 속한 출연(연)의 연구원 중 창업을 원하는 연구원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원 창업 실용화 지원사업, 출연(연)이 보유하는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창업기술 이식방 운영사업, 창업절차 및 경영정보 등의 검색 대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업지원방 운영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지원단은 1997년 현재 KAIST가 제공한 500여평의 사무실과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한 약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8명의 전임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의 성격상 급속하게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기업은 1997년 현재 탄산 칼슘 및 농약 제조업체인 (주)동호, 데이터 획득 시스템 및 자동 시뮬레이터 개발에 특화한 다림시스템(주), 반도체 소자 및 집적회로 설계 및 제작에 특화한 쉘트리연구소(주) 등 23개에 이르며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은 400여명에 달한다. 과기부는 창업지원단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 예산중 성과확산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확보된 약 10억원이 배정하였으며 앞으로 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술수요측면에서 본다면 아직도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다. 무엇보다도 대전지역의 시장 규모가 제한되어 있고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 신규 창업기업들이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산업체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겠지만 공급측면의 이점이 이러한 약점을 능가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대전지역은 아직도 하부구조면에서 취약하다. 교육, 의료, 금융, 국제교통, 문화 등 사업여건이나 하부구조가 서울·경기지역에 비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려는

1) 이공래, “제2장 제3절 기술확산정책”,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STEPI 연구총서 98-1,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1998.

2) 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 안내 자료, 1997

노력이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창업지원단의 운영에 있어서는 외부의 간섭이 배제되고 자율적인 운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수한 창업 희망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도록 유인할 수 있어야 하고, 이들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자문하고 도와줄 수 있는 지적 자산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겠다. 또한 창업기업에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엔젤기금 등 각종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창업 투자자금의 유치가 수반되어야 하겠다.